

조직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설명과 조직범죄사업

백 창 현 *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조직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설명
- III. 조직범죄사업
- IV. 맺으며

I. 들어가며

캐나다 연방경찰은 2005년 6월에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Mafia)¹⁾ 조직의 배후인물로 인터폴에 수배 중이던 안토니오 코미소를 체포한 바 있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1) 마피아(Mafia)의 어원은 ‘아름다움’이나 ‘사랑’을 뜻하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Sicily)섬의 말이다. 마피아는 원래 19세기의 시칠리아섬을 주름잡던 반정부 비밀결사 조직이었으나, 그 조직의 일부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 범죄조직을 만들었다(미국 마피아). 이들은 1920년대의 금주법으로 자금원이 생기자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는데,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피아 내부에도 질서가 생겼으며 합법적인 위원회가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재원은 주로 성매매, 도박, 마약, 사금융 등이지만 노동조합과 회사와도 손을 잡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 컨글로머리트(conglomerate, 복합기업)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00여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는 마피아는 본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범죄 조직을

다. 그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역의 마피아 두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조직은 ‘칼라브리언 마피아(소위 은드란게타²⁾)’로 불린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미국 뉴욕을 무대로 활동해온 유명 마피아 조직 감비노 패밀리(Gambino Family)³⁾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노인환자 요양소의 이권사업 등과 관련하여 갖가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미국 내의 다른 마피아 조직인 라 코사 노스트라(La Cosa Nostra, LCN)⁴⁾ 등과 협력하여 불법도박업 등으로 2천만 달러(한화 240억원)를 벌어들이고 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이나 이탈리아의 마피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삼합회(三合會, triads)⁵⁾, 일본의 야쿠자(yakuza)⁶⁾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 일반명사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마피아(Mafia)’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더 이상 시칠리아의 그것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 2)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Sicily)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육지인 칼라브리아(Calabria)의 마피아이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이며, 은드란게타는 주로 토지에서 착취를 해 왔다. 은드란게타(Ndrangheta)는 칼라브리아 방언으로서 ‘용기 있는 남자’를 의미한다. 1970년대부터 자주 일어났던 유괴 사건 - 주로 북부 이탈리아의 부유층 사람들을 납치해 와서 아스프로몬테산(해발 1955m)의 동굴에 감금해놓고 고액의 몸값을 요구함 - 은 이 범죄조직이 행한 것이 많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은드란게타는 ‘유괴 마피아’라고도 불린다. 1973년에 로마 유학 중이던 미국의 석유재벌 폴 게티(Paul Getty)의 손자를 유괴하여 고액의 몸값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의 귀를 잘라 보내 버렸던 사건은 유명하다.
- 3) 보나노(Bonano), 콜롬보(Colombo), 제노베세(Genovese), 루체세(Lucese)와 함께 5대 미국 마피아 패밀리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범죄조직이다.
- 4) 미국 마피아의 비밀 조직으로 원래는 시칠리아의 마피아이다. ‘우리들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원의 대지주에게 유착하여 성장해 왔으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과 시칠리아에서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왔다. 현재 시칠리아의 주도인 팔레르모(Palermo)를 본거지로 활동 중이다.
- 5) 마피아, 야쿠자와 더불어 세계 3대 범죄조직으로 손꼽힌다. 삼합회는 14K단, 신의안(新義安), 화합도(和合桃), 화승화(和勝和)의 4대 문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최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신의안은 1980년대 중반까지 4만 7천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었으며 홍콩의 도박장, 주점, 나이트클럽의 70%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 또한 영화 산업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홍콩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1996년 7월 5일자 아시아 위크지는 신의안의 우두머리를 아시아를 움직이는 50대 인물 중 34번째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해 주변 국가들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이들은 홍콩 구룡 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 북미 지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마약, 성매매, 도박 등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14K단은 중국 광주의 14번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와 같은 조직명이 유래되었는데, 이들은 회화에 16개 분파 조직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 중 효과와 덕파가 세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합회에는 두목격인 용두(龍頭) 혹은 산주(山主)와 부두목격인 부산주(副山主)가 있다. 일반조직원은 사구자(四九仔)라 불리며 입단식을 기다리는 예비 단원은 남등룡(藍登籠)이라고 불린다. 삼합회라는 이름은 홍콩 경찰이 이 조직을 상징하는 깃발에 천지인의 상징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영어로 ‘트라이어드(triads)’라고 부르다가 한자로 번역되면서 삼합회로 불리게 된 것이다.

등 세계 각국에는 수없이 많은 범죄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이며 범죄적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하워드 아바딘스키(Howard Abadinsky)는 조직범죄를 ‘불법 혹은 합법적 활동을 통하여 이득 및 권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위와 상호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비이념적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범죄조직의 구성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리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

여기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설명과 조직범죄집단의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본문의 내용은 하워드 아바딘스키의 저서 ‘조직범죄(Organized Crime)⁸⁾’ 중 2장 ‘조직범죄에 대한 설명(Explaining Organized Crime)’과 11장 ‘조직범죄사업: 도박, 고리대금업, 절도, 장물매매, 성관련 사업(The Business of Organized Crime: Gambling, Loansharking, Theft, Fencing, and Sex)’의 내용을 번역·재구성·보충한 것이다. 여기

6) 야쿠자의 어원은 8(야)·9(쿠)·3(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고 도박으로 생활을 하는 자를 부르던 용어였다. 그러나 이 말이 차츰 일정한 직업 없이 폭력을 휘두르며 남을 등쳐먹는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를 지칭하게 되었다. 야쿠자는 보통 구미(組)라고 부르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미는 조직의 두목격인 오야봉(親分)과 부하들인 고봉(子分)의 수직적 결합과 동료란 뜻하는 교다이봉(兄弟分)끼리의 수평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의리와 의무로써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리나 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등의 가혹한 체제가 뒤따른다. 예전의 야쿠자는 주로 도박판을 개장하여 수입을 올렸다. 그러다가 차츰 요식업소·유흥업소 등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금전을 상납받기도 하고 업소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막대한 재산과 폭력을 배경으로 유망한 사업을 추천하거나 이에 개입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마약거래나 고리대금업과 같은 불법 또는 합법을 가장한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국의 범죄조직 중에는 야쿠자를 본뜬 것이 많다.

7)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608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8) Abadinsky, H. (2003). *Organized crime*.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의 내용들은 주로 미국과 이탈리아 등지의 조직범죄에 관한 내용들이나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도 일정 부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직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상당 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조직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설명

조직범죄에 대하여 범죄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시도는 거의 드문 편이라 할 수 있다. 범죄학자들이 범죄와 범죄 행동에 대하여는 많은 이론들을 내놓았지만, 조직범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이론에서는 조직범죄의 원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범죄학적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아노미 이론

아노미(anomie) 이론은 19세기 말에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껴(Emile Durkheim)이 정립한 이론으로서, 1938년에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미국의 일탈 행위를 사회적·문화적 관점으로 설명하면서 발전시킨 이론이다. 머튼은 조직범죄를 ‘사회 구조로 인해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통상의 반응(a normal response to pressures exerted on certain persons by the social structure)’이라 설명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은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강조되어 이로 인한 병적 물질주의(pathological materialism)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들에게 크나큰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은 물론이고 비합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the ends justifies the means)’는 공식이 사회 전체에 통용되고 있어서 모든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기회를 잘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의 이야기는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배분되지는 않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수단 사이의 모순에 직면하고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아노미⁹⁾가 발생하게 된다. 아노미가 특히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때 머튼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개인별 적응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동조형(conformity)¹⁰⁾, 의례형(ritualism)¹¹⁾, 반역형(rebellion)¹²⁾, 도피형(retreatism)¹³⁾, 혁신형(innovation)¹⁴⁾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마지막 유형인 혁신형에 관심을 가지기로 한다. 이것은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조직적 범죄 행태(조직범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이안 테일러(Ian Taylor), 폴 월튼(Paul Walton), 잭 영(Jack Young)은 미국의 아노미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성공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을 성공으로 내몬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적·도덕적 환경의 결과는 시민들에 의한 혁신(innovation)이다. 그것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비합법적 수단의 사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결국 여기서의 혁신은 교묘하고 숙련되고 조직된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아노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범죄적 혁신으로 향하지 않고 왜 그 일부만이 범죄적 혁신으로 향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에드윈 서덜랜드(Edwin Sutherland)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을 제시한다.

-
- 9) 사회적 규범의 동요·이완·붕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혼돈 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를 말한다.
 - 10) 정상적인 기회구조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수단을 통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적응방식이다.
 - 11)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적응방식이다.
 - 12)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하려는 형태의 적응방식이다.
 - 13)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도피해버리는 적응방식이다.
 - 14)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형태의 적응방식이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적응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차별적 접촉 이론

서덜랜드에 의하면 모든 행동(합법적이든 범죄적이든)은 학습된다고 한다. 그러한 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숙한 개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접촉의 강도(intensity), 빈도(frequency), 지속성(duration), 우선성(priority)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충분하고 접촉이 범죄적일 때에 사람은 범죄기술, 태도, 합리화 등을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비범죄적 행위와 범죄적 행위와의 균형은 후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범죄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적당한 환경 - 비행적/범죄적 하위문화(delinquent/criminal subculture)가 번성하는 생태적 지위 혹은 군락(ecological niches or enclaves) - 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이 일부 사람들을 차별적 접촉 뿐만 아니라 아노미와 같은 강압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격하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 해체와 비행적/범죄적 하위문화를 통해 조직범죄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게 된다. 즉 아노미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모든 사람이 조직범죄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접촉을 통해 비행적/범죄적 하위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러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찾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상업적 사업체와 조직(commercial enterprises and institutions)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각각의 집단들은 좀더 친밀한 접촉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고 서로 결합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 지역은 지명과 역사를 포함하는 일정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지리적 실체와 사회적 의미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애착과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나 차이나타운(Chinatown)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조직범죄가 더욱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하위문화이론과 사회해체이론

전통적인 규범(conventional norms)에 따르는 대신 일부 사람들은 차별적 접촉을 통해

그들이 속해있거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비행적 혹은 범죄적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가족이나 집단에 의한 통제의 효과가 약해 상대적인 사회 해체(relative social disorganization)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범죄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범죄적 규범(criminal norms)에 노출될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전통적 규범보다는 범죄적 규범에 따르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잘 통합되므로 비행적 하위문화(delinquent subcultures)가 발달하게 된다.

문화의 힘은 그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결정된다. 하위문화는 거대한 혹은 중심적인 가치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가치 판단 혹은 사회적 가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대한 지배 문화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하위문화의 가치는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하위문화는 일정한 집단 사이에서 전통적인 것이 되어버린 가치, 규범, 행동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비행적 하위문화는 주류 문화에 반대되는 가치에 따른 행동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데, 하위문화이론은 하위문화적 비행(subcultural delinquent)을 표준에서 벗어난 가치(values that are deviant)를 학습한 결과로 정의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설명한다.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인 클리포드 쇼(Clifford R. Shaw)와 헨리 맥케이(Henry D. McKay)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의 미국 시카고를 범죄 패턴 연구의 실험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수십년 간의 연구 관찰 결과 인종 구성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범죄성향을 가진 거주자들(neighborhoods maintained a high level of criminality)이 일정하고도 명백하게 구분됨을 발견하였다. 즉 하나의 인종적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대체되더라도 범죄성을 가진 주민의 비율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그들을 범죄적으로 만드는 환경은 무엇인가?

쇼와 맥케이에 따르면 그러한 주민들은 비행과 범죄, 특히 조직범죄에서의 태도와 가치를 지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일정한 지역에 특별히 많은 성인 범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이들 역시 조직범죄로 상징되는 직업적 범죄에 자주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질서의 붕괴(disruption of the social order)는 지역사회에서의 높은 비행률과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1900년을 전후하여 많은 미국 도시들은 개인주의(industrialization), 이민(immigration), 도시화(urbanization)의 종합적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비정상적 행위양식(deviant tradition)이 발달하였고 이것은 전통적 규범과 대립하였다. 쇼와 맥케이에 따르면 비행과 범죄에 도움을 주는 태도와 가치 규범이 어떤 지역에 한번 뿌리내리면 범죄하위문화(subculture of crime)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가치는 문화적으로 전파되고 비행의 전통은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도 있다.

부적절한 가족적 사회화(inadequate familial socialization)의 과정을 거친 일부 사람들은 사회의 전통 규범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차별적 접촉을 통하여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이 속할 비행적 혹은 범죄적 하위문화의 규범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가족과 지역사회 통제 효과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대적 사회 해체의 환경(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relative social disorganization)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치 시스템(conventional value system)과 범죄적인 가치 시스템(criminal value system)이 고도로 통합되게 되는데 조직범죄사업의 리더는 교회, 형제적 집단, 공동 이익 집단, 정치적 집단 등의 전통적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회원을 유지한다. 이러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정치·경제·종교적 유대는 비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해준다. 특히 조직범죄 공동체는 젊은이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합법적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직범죄로의 입문(entry into organized crime)은 차별적 기회(differential opportunity)를 의미하게 된다.

4.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리처드 클라워드(Richard Cloward)와 로이드 올린(Lloyd Ohlin)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동의하면서 미국인들의 경제적 성공에의 집착과 사회경제적 계급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strain)을 경험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격하시킨다고 말한다. 낮은 계급에 속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고정되어 있고 불변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박탈감(extreme deprivation)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리고 합법적 성공에 이르는 길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극심한 박탈감의 환경은 비행적 하위문화에의 집단적 순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노미 하나만으로는 이들이 조직범죄에 참여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차별적 접촉을 통한 문화적 이동(차별적 기회)이 필요하다고 클라워드와 올린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 기회(legitimate opportunity)와 마찬가지로 비합법적 기회(illegitimate opportunity) 또한 평등하게 사회에 배분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범죄적 방식이라고 해서 비범죄적 방식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회(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왜 조직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인가? 사회통제이론이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5.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social control)는 지역사회가 전통적 행위 규범을 통해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관련된다. 사회통제이론가들은 ‘왜 사람은 범죄(조직범죄든 다른 범죄든)를 저지르게 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규범에 순응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연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잠재적 보상(potential rewards)에 충분히 동기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분의 사람만이 직업적인 범죄자가 되는가?

통제이론가들에 따르면 비행 행위는 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bond to society)가 약해지거나 깨질 때에 그 결과로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대의 강도는 내·외부적 억제(internal and external restraints)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내·외부적 억제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 행위로 나아갈 것인지 준법 행위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내부적 억제(internal restraints)는 정신분석이론에서의 슈퍼에고(superego)와 관련된다. 이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양심과 비슷한) 무의식적이지만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따르면 양심(conscience)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와 영향을 통해 발달하는 통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경험한 사

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슈퍼에고가 부모의 통제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유년 시절의 발달 과정에서 기능장애(dysfunction)를 겪거나 비규범적 영향(influences that are not normative)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내부적 억제가 결여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과 감정적 분리(emotional detachment)가 결합된 반사회적 인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조직범죄에서의 양심의 가책이 결여된 살인 행위는 이러한 범주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이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사회학의 관점에서 이해되든 내부적 억제는 가족의 영향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외부적 억제의 존재와 부재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

외부적 억제(external restraints)는 공적 수치(public shame), 사회적 추방(social ostracism), 벌칙에 대한 두려움(fear of punishment) 등의 사회적 불승인(social disapproval)과 관련된다. 즉 사람은 전형적으로 체포의 가능성과 그 결과로서의 벌칙·투옥에 대한 공적 수치 등에 의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범죄에 호의적인 도덕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위문화에서는 그러한 공적 수치와 사회적 추방은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오직 투옥의 위협(the threat of imprisonment)만이 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법적 강제를 포함한 사법기관에 의한 억제의 강도는 두 가지 범주에 따라 측정된다. 그것은 위험(risk) 對 보상(reward)이다. 위험은 범죄자를 예방하고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범죄 사법 시스템의 능력과 관련된다. 이 때 위험의 양은 잠재적인 보상과 반대된다. 그러나 위험과 보상은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상황(socioeconomic situation)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즉 보상이 클수록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것은 박탈된 경제적 환경(deprived economic circumstances)에 처한 사람이 왜 더욱 범죄 행위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인종적 계승

앞서 기술한 전통적 범죄학 이론의 관점들 이외에 조직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인종적

계승(ethnic succession)이라는 명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 간 조직범죄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탈리아인에 의해 지배되던 - 뉴욕과 보스턴의 일부 지역은 아일랜드인에 의해 지배됨 - 조직범죄에 점차적으로 다른 인종이 유입되게 된 것이다. 유대인 이민자들의 제3세대가 조직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미국을 떠나 이스라엘 등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유대인 조직범죄 회원은 점차 그 수가 감소한 반면, 이탈리아인은 그 수가 충분할 정도로 유지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마피아가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유대인 갱들은 그들 자신의 인종 집단에서 채용과 승진을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직범죄집단은 광범위한 합법적 사회집단보다도 더욱 더 계층화되어 있으며 고위직은 항상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범죄에 있어서 인종적 계승(ethnic succession)이라는 이슈를 이끌어낸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탈리아인이 조직범죄에서 떠나거나 퇴출되고 흑인과 푸에르토리코인 이주자들이 그들을 대체하고 있어도 인종적 계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는 다른 인종적·국가적 집단들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쿠바인, 중국인, 콜롬비아인, 도미니카인, 자메이카인, 멕시코인, 나이지리아인, 러시아인 등이다. 인종적 계승의 명제에 따르면 조직범죄에의 관여(involve in organized crime)는 경제적 상황에의 합리적 대응(rational response to economic conditions)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이론가들은 이러한 1차원적인 관점을 거부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중요한 심리적 보상(important psychic rewards)과 의미 있는 사회적 구조(meaningful social structures)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중류층에 속하는 젊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남성들은 라 코사 노스트라 등에 끊임없는 매력 - 일정한 사람들에게 마피아는 낭만과 동경의 대상이다 - 을 느끼는데,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 등 매스미디어의 연출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 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 - 에서 마피아와의 연줄은 위세와 명예를 가져다준다.

일부 학자들은 흑인 계열과 라틴 계열 사람들이 조직범죄에서 이탈리아인들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이탈리아계 미국인 집단이 위험에 비해 이익이 적어 손을 뗀 시장에서만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를 얻은 이탈리아계 조직범죄집단 사람들은 조직범죄 세계를 떠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을 따라 조직범죄집단의 멤버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조직범죄 멤버의 자식들이 실제로 그들의 부모를 따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범죄에서 인종적 계승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60년대에 뉴욕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해 온 많은 수의 남부 이탈리아 이민자들인 집스(zipps)였다. 남부 이탈리아의 범죄 조직 - 마피아, 카모라¹⁵⁾, 은드란게타 - 은 집스가 만든 미국 범죄 조직들과 연결된다. 집스의 대부분은 이탈리아 사법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마피아, 카모라, 은드란게타 간의 살인을 통한 경쟁적 파벌 싸움을 피해 도피해온 자들이었다. 어떤 자는 뉴욕의 전통적 조직범죄 집단과 연계되어 있기도 했다. 뉴욕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집스의 대부분은 이탈리아 본토의 전통적 범죄조직과는 독립된 - 그러나 협력은 하는 -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일부는 뉴욕의 전통적인 조직범죄 패밀리에 멤버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고 한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범죄조직에서는 마약 밀매와 같이 이익은 매우 크지만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사업에서 범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약 밀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 인력의 광대한 공급지라고 할 수 있었

15) 카모라(Camorra)는 나폴리의 마피아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담배 밀수로 급성장한 범죄 조직이다. 1998년에 나폴리 안에서의 이권을 둘러싼 서로간의 투쟁이 격렬해져 50명 이상이 살해되는 등 이탈리아 내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러한 투쟁의 배경에는 유로화 도입의 기대와 나폴리로의 국외 투자를 둘러싼 이권이 얽혀 있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군대를 나폴리에 파견하여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카모라는 마피아나 은드란게타와 달리 농촌이 아닌 대도시(스페인 지배하에서 항상 나폴리는 수도였다)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형 범죄 조직이다. 그 정점의 보스는 맘마 산티시마(mamma santissima: 가장 성스러운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다른 마피아와 달리 여성 보스가 있었던 적도 있다. 시칠리아 마피아와 같이 카모라도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마피아를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담배의 밀수를 행하고 있었지만 그 후 럭키 루치아노(Lucky Luciano)가 나폴리로 옮겨와 마약의 거래망을 만들었다. 시칠리아 마피아와 같이 보스 중의 보스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보스가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간의 투쟁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카모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카모라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공사업 계약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챙겼을 만큼 막강했으며 정치권과의 연계도 깊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주요 인물인 라파엘 쿠톨로와 카르민 알피에리가 검거되면서 카모라에는 힘의 공백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조직은 담배·마약 밀매의 주도권을 놓고 분열되었다. 현존하는 카모라의 조직원은 3,000-4,000명선으로 알려져 있다.

다. 당시 이탈리아는 빈곤과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남부 이탈리아의 청년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일에도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피아 등에게 있어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예비군(reserve army)인 셈이었고, 범죄 인력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의 전통적 범죄조직과 집스 간의 유대는 1987년의 피자 커넥션(Pizza Connection)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개타노 바달라멘티(Gaetano Badalamenti)가 보스로 있던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에서 살바토레 카탈라노(Salvatore Catalano)가 보스로 있던 뉴욕의 보나노 패밀리에 16억 달러(한화 1조9200억원) 어치의 헤로인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카탈라노는 1961년에 시칠리아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 브루클린 지역 집스 패거리의 보스가 된 사람이었다.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은 터키에서 모르핀을 구입하여 그것을 헤로인으로 가공하였다. 보나노 패밀리의 소유였던 미국의 피자 가게는 마약 밀매 장소로 활용되었다.

집스와 그들의 미국 파트너들은 비슷한 관습(customs), 범죄 철학(criminal philosophies), 일반적 전통(common heritage)을 서로 나누었으며, 범죄 패밀리의 원형(prototype of the crime Family) 역시 각 시스템에서 동일하다. 미국 내 집스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 북동부, 특히 뉴욕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집단들은 보스턴, 버팔로, 시카고, 필라델피아, 휴스턴, 달라스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조직범죄사업

조직범죄사업은 지금까지 비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goods and services that happen to be illegal) - 도박, 고리대금업, 마약 등 - 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활동이 아니라 기생체적인(parasitic) 활동을 한다. 즉 조직범죄사업은 기본적으로 착취(extortion)이며 비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죄자들(those criminals who provide goods and services)이 그들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범죄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설마권업자(bookmaker)는 그러한 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폭력으로 고통받든지(혹은 부패한 경찰에게 일제 검거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한다. 조직범죄집단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고 사설마권업자나 다른 범죄자들은 폭행이나 살해(혹은 경찰의 단속)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허가를 자릿세(street taxes)라는 명목으로 사야만 한다.

뉴욕의 잘 나가는 한 사설마권업자의 임금대장에는 와이즈가이(wiseguy)¹⁶⁾에게 주당 수백달러씩 지급한 내역이 적혀 있다. 이것은 다른 범죄자들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갈취하는 것을 막아주므로 보험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와이즈가이는 빚을 받아내는 것도 도와주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commission)는 보통 50-100% 정도이다. 특히 장물매매는 기본적으로 조직범죄사업의 부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도박, 고리대금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범죄집단과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는 도박, 고리대금업, 절도/장물매매, 성관련 사업 등의 조직범죄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도 박

도박사업 중 일부는 합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의 인가를 받은 경마장이나 경견장, 정부가 운영하는 장외경마장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카지노(casino)도 영업 중이다. 주(state), 카운티(county), 시(municipal)는 이러한 합법적 도박사업으로 막대한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가 받지 않은 비합법적인 도박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합법적 도박에 대한 단속이 약화된 틈을 타고 - 1960년에 비합법적 도박으로 체포된 사람은 12만 3천명이었으나 그 숫자는 1995년까지 1만5천명으로 계속 하락해왔다 - 이것은 1983년에서 1995년까지 10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도박에 대한 단속 약화는 조직범죄집단이 더욱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도록 만

16) 미국에서 전통적인 조직범죄 멤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들었다. 마약 거래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그에 대한 벌칙도 커진 반면, 비합법적 도박에 대한 벌칙과 단속은 약해진 것이다. 도박에 대한 단속의 약화는 핸드폰과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도박의 방식 역시 바뀌어 단속이 어려워진 것이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박 단속 강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약해진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가. 마권업

초기에 마권업은 조직범죄집단의 수입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었다. 조직범죄집단은 직접 인가받은 마권업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레이스의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마권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비합법적 도박은 스포츠 도박에 집중되어 있으며, 베팅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산은 그날의 경기가 끝난 뒤 이루어지므로 통신 서비스를 통한 즉석 결과 제공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베팅은 보안성도 가지므로 조직범죄집단이 비합법적 마권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였던 경찰의 보호(police protection)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마권업은 수많은 거래와 문서 업무를 요한다. 1995년에 경찰이 한 비합법적 마권업자의 사무실을 불시에 단속했을 때, 총 거래액은 6천5백만 달러(한화 780억원)에 달했고 마권업자가 챙기는 수익은 20%였다. 또한 독자적으로 제작된 스포츠 베팅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던 그들의 컴퓨터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최근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려주는 라스베가스(Las Vegas)의 온라인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은 콜롬보 패밀리(Colombo Family)와 감비노 패밀리(Gambino Family)와 연계되어 있었다.

한편 비합법적 마권업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가 더욱 어렵다. 마권업자들은 수시로 스포츠지와 라디오에 이를 광고하는데, 이른바 미국 최대 마권업자라고 할 수 있는 론 소코(Ron Socko)는 도박 사업이 합법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객들을 위해 800개의 전화 회선 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를 1996년 6개에서 2000년에는 600개 이상 개설하여 코스타리카와 같이 도박 사업이 합법인 국가에서 그것들을 운영하였다.

인터넷 도박은 카지노 도박, 스포츠 도박, 복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500달러(한화 60만원) 이상의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한다. 모든 도박사에게는 개인 ID가 부여되고, 특별 무료 장거리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베팅이 이루어진다. 돈은 개인의 계좌에서 가감되며, 우편으로 수표를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의 사용은 인터넷 도박을 더욱 촉진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종종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지불하는 돈이 연간 30-40억 달러(한화 3조6천억원-4조8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1) 경마 도박

비합법적 경마 도박은 가장 오래되고 주요한 마권업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도박보다는 액수면에서 하위이다. 이러한 점은 뉴욕, 코네티컷, 일리노이에 합법화된 장외도박장이 생김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경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중·노년층 사람들이며 이들은 내기를 함에 있어 상당히 신중한 편이다. 그들은 각 경주마에 대한 정보를 그날의 지역 신문이나 경마가이드 잡지에서 취득한다. 비합법적 경마 도박업자는 보통 경마표 판매액의 15-20%를 세금(taxes)과 운영비(operational expenses) 명목으로 공제한다.

2) 스포츠 도박

총액면에서 보자면 스포츠 도박 - 축구, 야구, 농구, 복싱 등 - 은 마권업의 왕(the king of bookmaking)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합법적 스포츠 도박업자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보통 총액의 5% 이하이다. 경마 도박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도박에서도 업자는 중개인(broker)의 역할만 할 뿐 직접 도박을 하지는 않는다. 그 중 북아메리카프로미식축구리그(The National Football League, NFL)는 가장

큰 스포츠 도박 대상이라 할 수 있다.

3) 복권(lotteries)

19세기에 복권은 주의 인가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 복권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1890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복권회사가 우편이나 신문을 이용하여 복권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폴리스(policy)¹⁷⁾, 넘버스(numbers)¹⁸⁾, 케노(Keno)¹⁹⁾와 같은 비합법적인 숫자 알아맞히기 도박들이 성행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미국의 각 주에서는 합법적 복권과 비합법적 복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합법적 복권의 배당률은 보통 합법적 복권의 그것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비합법적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세금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비합법적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법적 복권이 비합법적 복권의 수익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실제로 합법적 복권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비합법적 복권의 수익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비합법적 복권의 운영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많이 게임을 하도록 광고를 대량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들이 광고로 지출하는 돈은 연간 약 3억7천5백만 달러(한화 4천5백억원) 정도이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혹은 평범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복권의 당첨 번호를 맞히는 데에 열광하고 있으며, 잭팟(jackpot)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17) 휠(wheel)을 돌려 1에서 78까지의 숫자를 맞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조직폭력집단에서 운영하였는데 그 액수는 상당히 큰 편이었다. 내기는 폴리스숍(policy shops)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운의 숫자를 고를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드림북스(Dream Books)라는 책이 팔리기도 하였다.

18) 0-9까지의 한 자리 숫자(single action), 두 자리 숫자(double action), 세 자리 숫자(box numbers)를 선택하여 그것을 맞히는 것이다.

19) 컴퓨터 추첨에 의한 전자적 게임으로서, 80개 번호 중 10개를 선택하고 20개 번호를 추첨해 당첨번호를 맞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복권 추첨이 통상 1주 혹은 1일에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것은 5분마다 이루어진다.

나. 카지노 도박

카지노²⁰⁾ 도박은 많은 인력, 장비, 시설, 자금, 공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카지노 도박은 뉴포트(Newport), 켄터키(Kentucky), 피닉스 시티(Phoenix City), 알라바마(Alabama) 등과 같이 넓고 훤히 트인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몇몇 도시들은 조직범죄집단의 원조·승인·보호 하에 라스베가스 나이트(Las Vegas Nights)와 같은 많은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카지노 운영자는 도박 장비,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들은 그 수익을 스폰서 조직과 나누었다. 조직범죄집단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몇몇 도시의 도박장은 경찰에게 일제 단속을 당하거나 독자적 혹은 조직범죄집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도단에게 습격 당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마피아 등과 같은 조직범죄집단과의 연계는 카지노 운영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 요소였다.

대공황으로 인하여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1931년에 네바다주는 도박을 합법화하고 도박장을 인가하였다. 특히 라스베가스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가 되었는데, 벅시 시겔(Bugsy Siegel)은 미국 전역의 조직범죄집단 우두머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라스베가스의 첫 번째 도박장인 플라밍고 호텔(The Flamingo Hotel)을 지었다. 그러나 1947년에 시겔이 살해당한 후²¹⁾ 플

20)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오락장 또는 도박장으로서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카자(casa)가 어원이다. 처음에는 대중적 사교장이었으나 오늘날은 해변가·온천지·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옥내 도박장을 말한다. 카지노는 보통 비합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 관광시설, 외화획득 등의 목적으로 개설을 공인한 데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국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8-19세기에 유럽 각지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활발했으나 혁명(귀족계급의 몰락)이나 악덕의 온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금지되어 왔다. 미국에서 카지노라고 할만큼의 시설을 처음 선보인 것은 19세기 중엽부터 남북전쟁 때까지 미시시피강에 있는 200여 척의 호화관 도박선이었다. 19세기 말에는 뉴올리언스에서 과세의 목적으로 공식개설이 허용되었다. 미국에서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네바다주, 뉴저지주, 노스다코타주 등이며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리노 등에는 20여 개의 카지노가 있다. 유럽에서는 지중해에 면한 남프랑스의 칸과 니스, 1861년에 개설된 모나코 왕국의 몬테카를로 카지노가 유명하다. 그밖에 이탈리아의 산레모, 독일의 트라페뎀트 등을 들 수 있으며 영국에서도 허가제의 카지노가 개설되어 있다. 중남미 여러 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관광객용의 카지노가 있는데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푸에르토리코의 샌환 등의 카지노가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마카오 등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의 관광호텔과 강원랜드, 서산, 군산, 광양, 해남 등지에 카지노가 개설되어 있다.

라밍고 호텔을 비롯한 많은 호화 호텔들이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 곳의 수익은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각 조직범죄집단의 보스들에게 분배되었다. 연방 정부 기록에 의하면 스타더스트 호텔(The Stardust Hotel) 한 곳에서만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최소 1,400만 달러(한화 168억원)에 달하는 돈이 탈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1983년에 스타더스트 호텔 관계자 몇 명이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해에 트로피카나 호텔(The Tropicana Hotel) 카지노 관계자들도 캔자스시티, 미주리의 조직범죄집단 멤버와 함께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986년에는 시카고,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밀워키의 조직범죄 집단 우두머리들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의 수익을 탈세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1998년에는 카지노 운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던 감비노 패밀리 조직원 6명이 연방 정부 요원들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다. 라스베가스는 이제 더 이상 마피아가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며 카지노들은 엄연한 법인체가 되었다.

뉴저지주 아틀랜틱 시티(Atlantic City)는 미국에서 카지노 도박이 네바다주에 이어 두 번째로 허용된 지역이다. 이 곳에서는 카지노에서 조직범죄집단을 몰아내려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뉴저지주 경찰(The New Jersey State Police)과 뉴저지카지노감독위원회(The New Jersey Casino Control Commission)는 카지노에 조직범죄집단 세력이 더 이상 침투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해왔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모든 카지노 플로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는 대형 카지노 호텔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침투해 있는 것이다.

21) 벅시 시젤(본명: 벤자민 시젤)은 플라밍고라는 별명을 가진 여배우 버지니아를 정부로 두고 있었는데, 플라밍고라는 호텔 이름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나 총 600만 달러를 투입한 호텔 공사가 진행되던 중 버지니아는 250만 달러를 횡령하여 스위스로 달아난다. 그 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으나 벅시는 전 재산을 바쳐 플라밍고 호텔을 마침내 완공(1946년 12월 25일)한다. 하지만 초기 매출이 지지부진하자 그에게 돈을 투자했던 마피아는 그를 암살하게 된다. 한편 600만 달러(한화 72억원)를 들여 건설한 플라밍고 호텔은 이후 1991년까지 1,100억 달러(한화 132조원)의 이익을 창출해 낸다.

다. 기타 도박

빙고(bingo)²²⁾는 미국의 46개 주에서 합법적인 도박으로 인정되고 있다. 빙고 역시 조직범죄집단의 주요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는 동전 투입식 비디오 포커 머신(coin-operated video poker machines)이 매우 인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술집 같은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슬롯 머신(slot machines)과 비슷하나 직접 돈을 걸지는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다. 시카고에서는 조직범죄집단이 이러한 기계를 공급하고 그 이익 - 기계 1대당 1주에 수천달러 정도 - 을 나눈다. 포커 머신의 공급자와 소유자는 50대 50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2002년에는 시카고시 스톤 파크(Stone Park)의 전 시장이 마을의 술집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포커 머신을 보호하는 시카고 최대 범죄조직이었던 시카고 아웃핏(The Chicago Outfit)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8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2.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loansharking)²³⁾은 조직범죄집단의 또다른 주요한 수입원이다. 1880년에서 1915년 사이에 샐러리 렌딩(salary lending)이라는 관습이 미국에서 만연하였는데, 이것은 봉급 생활자들에게 고리로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샐러리 렌딩은 준합법적 사업으로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잃을 수

22) 가로 세로 5개씩 25개의 말을 가진 네모판을 만들어 한가운데 말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속에 1-75까지의 숫자를 적고 참가한 경기자에게는 각각 다른 카드를 나누어준다. 경기자가 숫자를 적어 놓은 박스에 둘러앉아 그 안에 공이나 화살을 던져 공개적으로 숫자를 고르면 그 숫자와 같은 숫자를 자신의 카드에서 뽑아낸다. 그래서 가로·세로·사선으로 한 줄에 5개의 숫자를 남보다 먼저 뽑아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23)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1596년에 지은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는 샤일록(Shylock)이라는 유대인 캐릭터가 나온다. 샤일록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살을 1파운드 잘라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그 글을 쓰던 당시에는 영국에 유대인 채권자는 없었다. 모든 유대인은 1290년에 에드워드 1세(Edward I)에 의해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1650년대까지 영국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Shylock’이라는 이름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범죄자들에 의하여 ‘shark’로 빨리 발음되었고 결국 고리대금업을 지칭하는 용어인 ‘loanshark’라는 단어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도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이루어졌다.

그 후 러셀 세이지 재단(The Russell Sage Foundation)의 노력으로 미국의 많은 주들은 이러한 관습을 막기 위해 사채업자들의 대부에 관한 법률들(small-loan acts)을 제정하기 시작한다. 매사추세츠주가 1911년에 가장 먼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이자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샐러리 렌딩이라는 관습은 사라지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을 대신하여 소비자신용조합(credit unions), 저축은행(savings banks)을 비롯한 유사 신용기관들이 대부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폭력집단이 무허가 신용사업에 대대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리대금업은 두 가지 주요한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① 과대한 이자율(exorbitant interest rates) ② 채권 행사에 있어서의 협박과 폭력 사용(the use of threats and violence in collecting debts)이 바로 그것이다. 금주법 시대와 대공황 시대가 막을 내리자 조직범죄집단들은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현금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리대금업이었다. 조직범죄집단은 회원이 아닌 동업자들을 이용함으로써 고리대금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은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많은 고리대금업자들은 다른 범죄자들 - 비합법적 도박 사업자 등 - 에게도 대부를 제공한다.

고리대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녹다운(knockdown)과 빅(vig)이 바로 그것이다. 녹다운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에 있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1천 달러를 14주에 걸쳐 100달러씩 분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빅은 월요일에 빌린 5달러를 그 다음주 월요일에 6달러로 갚는 것이다. 그래서 식스포파이브론(six-for-five loan)이라고도 불린다. 이 때 이자에 해당하는 1달러를 비거리쉬(vigorish) 혹은 쥬스(juice)라고 부르며, 이러한 고리대금업을 쥬스래킷(juice racket)이라고 부른다. 만약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 기일에 갚지 못하면 채무자는 이자를 먼저 갚아야 하며, 이 이자도 갚지 못하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100달러는 1주 후에 120달러로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갚지 못할 경우 이자인 20달러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갚지 못하면 20달러는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에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다시 물어야 한다. 결국 100달러가 1주 후에는 120달러, 2주 후엔 144달러, 3주 후엔 172.80달러, 4주 후엔 207.36달러가 된다.

3. 절도 · 장물매매

마피아는 보통 직접적으로 절도, 강도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 제공, 재정 · 무기 · 자동차 지원, 다른 범죄자들 - 직업적 강도 · 유괴 단체, 주식 · 채권 절도단 등 - 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에 개입한다. 또한 도난된 유가증권 · 수표 · 신용카드의 매매에도 가담한다. 결국 그들은 전통적 범죄자들(conventional criminals)과 사업적 세계(business world)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가. 도난 유가증권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까지 유가증권(securities)의 거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조직범죄집단에 좋은 수입원이 되었다. 유가증권 중개소와 은행에서는 액면가가 수십만 달러인 유가증권들이 자주 도난 · 분실 당하였음에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보고되지도 않았다. 유가증권 산업은 많은 인력을 요하는데, 그들의 임금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도박빚이나 사채빚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낮은 임금을 보충할만한 수입원을 찾는 피고용인들 - 어떤 경우에는 무장 강도들이 은행 등에서 유가증권을 강탈하기도 하였다 - 은 빼돌린 유가증권을 언제든 처분해줄 수 있는 시장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한 시장은 조직범죄집단과 연계되어 있었다. 즉 도난 유가증권을 조직범죄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넘기면 전문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다.

나. 장물매매

장물아비는 도난된 물건들을 언제든 처분해줄 수 있는 시장 역할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약 13%는 조직범죄집단의 일원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고려대

금업과 도박 사업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카고에서는 강탈한 물건들을 조직 범죄집단과 연계되어 있는 장물아비를 통해 처분하기를 거부한 8명의 절도범들이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4. 성관련 사업

조직범죄집단의 섹스 사업은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해왔다. 매음굴을 포함한 하우스 성매매(house prostitution)는 대규모 이민 시대의 주요한 사회 현상이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미혼이거나 아내 없이 홀로 생활하는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성매매 사업은 보통 도시의 흥등가에 제한되어 행하여지는데, 이것은 사회개혁가나 종교개혁가의 주요한 타겟이었다. 그들은 성매매 사업에 반대하는 캠페인 - 그들은 이것을 ‘백인 노예 거래에 대한 전쟁(the war on the white slavery trade)’이라고 불렀다 - 을 펼쳤으며, 20세기 초에는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904년에는 서유럽과 러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프랑스 파리(Paris)에서 국제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백인 여성에 대한 범죄적 인신 매매를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1908년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었다. 1910년에는 미국에서 백인노예법(The White Slave Act)²⁴⁾ 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성매매와 유희 및 기타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여성이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뉴욕, 밀워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등지에서는 여자를 구하고 조달해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구해주었으며 수익이 짝짤한 좋은 사업거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역시 조직범죄집단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의 빅 짐 콜로시모(Big Jim Colosimo)와 조니 토리오(Johnny Torrio)가 그 우두머리격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성매매 사업을 통한 조직범죄집단의 이익은 금주법 시기에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주류 밀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결과였다. 그러나 금주

24) 이 법의 발기인인 일리노이주 의원 제임스 만(James R. Mann)의 이름을 따서 만법(The Mann Act)이라고도 부른다.

법 시대가 끝나고 대공황 시대가 오자 조직범죄집단들은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들은 많은 도시에 독립적인 매음굴을 만들고 포주들로 하여금 경찰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조직범죄집단의 하수인에게 돈을 상납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민자들의 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자 성매매 사업은 1939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포르노 사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포르노 사업은 미국 전역에 걸쳐 조직범죄집단의 독점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포르노 사업이 합법화되고 합법적인 기업체가 포르노 사업을 시작하자 오늘날 조직범죄집단은 그들의 단순한 기생체로 변모하게 된다. 즉 보호비(protection money)를 갈취하는 것이다.

섹스 사업을 위한 여성의 국제적 매매는 현대적인 다국적 조직범죄의 한 특성이 되었다. 이탈리아, 알바니아, 러시아, 중국, 일본의 범죄조직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제적 인신매매의 중심에 있었다. 구소련과 발칸의 수만명의 여성들은 악명 높은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강간·폭행을 당하고 성의 노예로 서유럽에 팔려가기도 한다. 여성들은 보통 특정되지 않은 서유럽 국가에서 댄서, 웨이트리스, 가정부, 베이비시터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보고 이러한 곳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외국에 채용되게 되면 성매매 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

여성들이 공식적이고 정규적인 노동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그들은 점점 더 보호되고 있지 않거나 범죄화된 노동 시장 - 성적이고 착취적인 일 - 으로 더욱 떠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착취의 한 가운데에 조직범죄집단이 있다.

IV. 맺으며

긴장은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일부 사람들이 왜 조직 범죄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전통적 조직 범죄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충

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바꾸어 말하면 가난(poverty)과 제한된 경제적 기회(limited economic opportunity)가 확실히 한 사람을 혁신적 행위(innovative activities)로 나아가도록 몰아낼지는 몰라도 왜 중류층 젊은이들조차도 범죄조직에 편입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범죄학 이론만으로는 조직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전통적 조직범죄는 조직범죄자방지법(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법)²⁵⁾에 의한 연방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인하여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전통적 조직범죄 집단보다 더욱 대처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범죄집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종적 계승 역시 모호한 개념일 수 있다. 새로운 집단이 범죄조직의 일부가 되긴 하지만 그들이 더 오래된 집단들을 반드시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주법은 유태인과 이탈리아인으로 하여금 조직범죄에의 참여를 통해 부정직한 사다리(crooked ladder)를 타고 급속히 위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금주법은 이탈리아 갱단들이 그들의 힘을 강화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일정한 화학 물질 - 마약, 약물 등 - 은 범죄적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 알콜과 다양한 형태의 도박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적 삶의 스케일과 복잡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사회적 유동성은 주민들을 인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정확한 하위문화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교외로 이동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전통적 이탈리아계 미국인

25) 미국의 RICO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직범죄 규제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미국 내의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주는 조직 및 단체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행한 복합적 강탈행위 또는 불법채무의 징수에 가담한 경우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벌과 민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4가지로서 ① 불법한 수익의 투자 ② 조직의 불법한 이익 취득 ③ 사업체의 불법 사용 ④ 불법한 행위에 관한 공모이다. 그리고 이 법은 조직범죄활동(racketeering activity)으로서 살인, 유괴, 도박, 방화, 강도, 뇌물수수, 공갈, 음란물 거래, 마약 또는 위험약물의 거래, 위조, 현금횡령, 우편전신사기, 음란물의 우송, 사법방해, 수사방해, 증인·피해자 또는 정보협력자에의 간섭과 보복, 노동조합에의 지불 또는 대부의 제한, 노동조합기금의 횡령, 사기, 마약 기타 위험약물의 제조·수입·은닉 등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범죄조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범죄의 수단 혹은 하층민이 사회적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조직범죄 집단은 현재 마약 거래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새로운 범죄 조직들에 상당 부분 가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은 부패한 도시 정치 체제와 무력한 연방사법집행기관이 있는 한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게 될 것이다.